

50+시민참여회의의 제안 정책1

I 제안하는 정책의 주제와 내용

세대공존플랫폼 '50+와 함께하는 신세대 맘들의 드림존'

- 공공의 공간과 50+세대가 만나서 세대공존 드림존 사례 만들기
 - 50+캠퍼스, 서울혁신파크 등 사회혁신 공간이나 지자체 유휴 공간
 - 50+실천TF를 구성하여 기획, 실행, 평가, 보완하여 모델링하는 방식
- 50+세대와 참여 세대가 균형 있게 의사결정 하는 운영구조 마련
 - 엄마와 아이, 신세대맘과 50+세대가 공존하는 내용을 잘 담으려면 당사자인 50+와 신세대 맘이 주체가 되어 협력하는 운영구조로 설계
- 드림존에 담아내는 프로그램 예
 - 50+세대에게는 공익활동 공간이 되고 신세대 맘들에게는 온전한 자기 힐링 공간이 되도록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해 오픈 소통 정례화
 - 50+와 신세대 맘이 함께 요리하는 한 끼 나눔 공간 등 50+의 경험과 신세대 재능을 서로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 나감
 - 점차 다양한 세대가 공유하여 공존할 수 있는 세대체험 공간, 임신체험 공간, 노인과 장애인 체험 공간을 만들어 다른 세대를 경험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감
 - 온.오프라인 세대 광장을 만들어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50+세대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세대공존 담론 형성(예: 광화문 광장에서 벌이는 세대공존 축제)

▣ 제안 정책 도출 과정

1. 소공론장 의제 발굴과 추진단의 심화 정리

1) 도출의제 : 세대 공존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(플랫폼)

부제 : “맘들이 우리도 힘들어요. 힐링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”

2)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

- ① 신세대 맘들의 마음속에 체증은 쌓이는데 벗어낼 시간과 공간 부재
 - 육아에 매달려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살지만 정작 자신은 짝 막힌 삶
 - 우울, 무기력, 자괴감에 빠지기 쉬우나 스스로 헤어나기 어려운 짝 막힌 마음
- ③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싶으나 접점이 안 보이는 50+세대

3)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방법

- ① 50+세대가 인생선배로서 신세대 맘에게 손을 내밀자
 -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하여 자신만을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여유시간 주기
 - 문제 발생 시 자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기회 주기
 - 자신이 하는 일이 아이를 위하는 일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매진하게 도움주기
 - 신세대 맘들의 취미생활이 가능한 문화 공간 확대
 - 능동적으로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기

(1) 실천방법

① 세대공존플랫폼 ‘50+와 함께하는 신세대 맘들의 드림존’

- 50+가 신세대 맘을 초대해 다양한 현실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해가는 장
- 삶터는 동단위에서, 일터는 50플러스캠퍼스 중심으로 한두 곳 시범 후 확대
- 삶터: 주민자치 자치계획에 ‘50+와 함께하는 맘들의 드림존’ 의제 제안
- 일터: 50+캠퍼스나 서울시의 빈 공간 한두 곳에서 시범 운영

② 경청하고 소통하는 ‘세대 공존을 위한 격렬한 끝장토론한마당’

- 신세대 맘들은 모든 것을 맘카페에서 해결한다며? 정말 그래? 듣고 대화하기

③ 감성 공감 ‘50+와 신세대 맘이 함께 기획하는 문화 나눔’ 장터

예) 나도 3050 패션모델, 연극, 밴드, 훌라댄스, 탱고, 라인댄스, 시낭송, 여행 등

④ 정보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가는 ‘50+가 찾아가는 격대교육(조손교육)센터’

- 세대 공존을 위한 공유·공감, ‘50+와 신세대 맘들의 상호보완 교육 프로그램’

⑤ 든든한 선배 ‘50+가 찾아가는 SOS 상호 돌봄 공유 지원단’

4) 적합한 해결 주체

- ① 50+ ② 서울시50+재단 ③ 서울시나 관련 지자체 ④ 그밖에

5) 왜 이렇게 문제로 느끼는지 이유나 제안하게 된 배경

- 4세대 백세시대를 넘어, 5세대가 공존해야하는 고조부시대가 도래 할 것
- 다양한 세대가 혼재하여 공존해야 하는 상황
 - ① X, Y, Z,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알파세대
 - ②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업, 결혼, 출산, 주거, 인간관계 등 포기한 N포 세대
 - ③ 경제 사회적으로 은퇴 한 베이비부머 세대, 밀레니엄 세대
- '가족, 직장, 이웃 간' 소통에 비해 '세대 간' 소통이 잘 안되고, 특히 정치, 사회 현안은 20 30대와 50 60대 간 세대 간극이 더욱 심화 됨.

“세대 간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”

6) 해결하고 나면 누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기대하는 모습

- 누가 좋아지나: 50+와 각 세대
- 어떻게 좋아지나
 - ① 신세대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려줌으로써 신세대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가 밝아짐
 - ② 서로 다른 역사를 통과해 온 세대 사이에 이해 폭을 넓히고, 50+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지점을 확대함.

2. 실천방법을 더 구체화하는 숙의공론장 개최

1) 숙의토론 주제

세대공존플랫폼 '50+와 함께하는 신세대 맘들의 드림존'

2) 숙의공론 결과

- 온·오프라인 세대 광장을 만들어 세대별 문화행사 실행
- 50+의 일과 활동이 신세대 맘들을 안전하게 힐링 할 수 있게 하는 공유 공간
- 엄마, 아이, 신세대 맘 간, 부모가 함께 공존하는 세대 공존 컨트롤 타워가 필요
- 50+와 신세대 맘이 서비스 당사자와 주체가 되어 다른 일자리 사업 전문가들에

게 독식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제안하여, 50+와 신세대 맘이 소비자로 머물지 않게 제도개선을 해야 함

- 드림존을 다양한 세대가 공유하여 공존할 수 있는 세대체험 공간, 임신체험 공간, 노인과 장애인 체험 공간들을 만들어 다른 세대를 경험하는 장으로 만들면 좋겠음
- 50+와 신세대 맘이 함께 요리하는 한 끼 나눔 공간에서 50+의 경험과 신세대 재능을 공유하는 장이 필요